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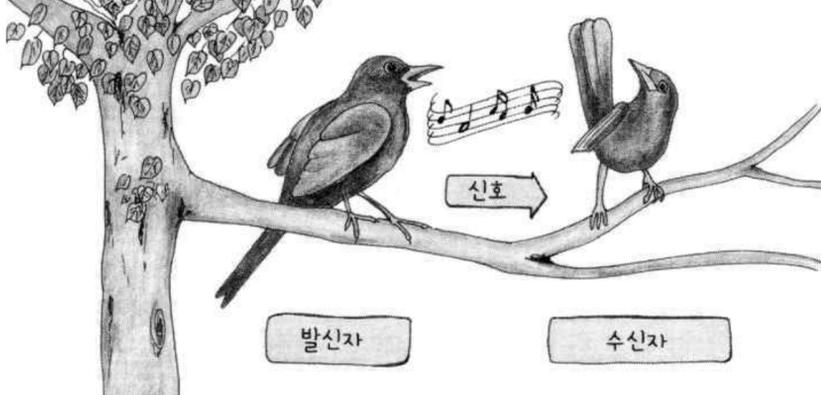
나무·새·곤충·물고기들의 속삭임 엿듣기

숲은 고요하지 않다

마들렌 치게 지음, 배명자 옮김



점차 신록이 우거져간다. 나날이 산빛은 푸르고 수목도 무성해진다. 숲은 무수한 생명들의 거처다. 아니 지구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공간이다. 인간만이 소통을 한다거나, 허풍을 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다시 말해 숲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고요하지 않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 수컷 지빠귀(왼쪽)가 암컷 지빠귀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면. <흐름출판 제공>

이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주제로 수렴된다.

카멜레온이나 오징어 같은 생물 외에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정보로 신호를 보낼 수 없다. 생명체는 매우 다채로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자에너지나, 색소 또는 냄새로 화학정보를 송신하기도 한다.

"귀뚜라미와 여치는 정각 면에서 다른 여러 곤충보다 그들의 다리 길이만큼 뛰어나다. 이른바 '고막기관'이 그들의 앞다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 고막기관은 막으로 덮인 일종의 공기주머니인데, 이 막은 우리의 고막과 같은 기능을 하고 외부매체의 압력 변화에 공명한다."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다. 지빠귀는 자신을 노리는 전철을 속이기 위해 암호를 발신하며 토끼는 '공중변소'를 이용해 동료와 정보를 교환한다. 플라나리아는 눈 대신 세포를 이용해 시각정보를 받아들인다.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동물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죽은 척이라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식물은 정착성 때문에 가시나 독, 화학적 신호를 매개로 포식자로부터 보호한다. 비늘송이버섯은 숙주식물 언어를 이용해 성장과 생존을 한다. 혼합림과 침엽수림에서 나무들과 공생하는데 '인돌-3-아세트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나무와 똑같이 생산한다.

저자는 생명체의 공존은 같은 공간에 사는 수많은 다른 생명체와의 소통과 조화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의 발신과 수신은 통해 '무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인간의 발명품이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치 꽃이 특정 시각 신호를 보내 수분할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소통은 그렇게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해준다. <흐름출판·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로고테라피 전문가이자 미국 로고테라피 국제본부의 한국지부 대표로 활동 중인 김미라는 빅터 프랭클의 인생어록을 중심으로 로고테라피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우리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다양한 상황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여주며 자신의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준다. <M31·1만6500원>

▲뇌 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지난 25년 동안 뇌를 연구해온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뇌 사용 설명서다. 저자는 '뇌의 한계와 능력을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하고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뇌를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브라이트·1만5800원>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일주일엔 한 권씩 책을 읽어내는 남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병완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는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직접 겪은 '자기변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도서관의 진짜 힘은 '의식의 도약'에 있다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얻게 된 것은 인생에 대한 큰 의식이라고 말한다. <싱긋·1만5000원>



▲구멍가게 이야기=빠르고 편리한 것을 쫓는 사이 사라져가는 동네 구멍가게를 인문학적 방식으로 조명하는 책이다. 문학을 전공한 박혜진·심우장은 2011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전남지역 지역 구멍가게 100여 곳을 답사해 주인과 단골 손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았다. 또 구멍가게를 배경으로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가게 구석구석을 찍은 사진도 볼거리다. <책과함께·2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유쾌한 할머니 다정한 할아버지=스쿠터를 타는 할머니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할아버지,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할아버지와 피아노 연주 연습을 매일 하는 할머니 등 아이 눈으로 본 다양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다는 편견을 깨준다. <풀빛·1만2000원>

▲줄다리기 한바탕=곰을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고군분투하는 사자의 모습을 통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힘 겨루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많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그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상대방에게 고집한다. 책은 상대방과 나의 마음을 알고 인정하며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전한다. <다림·1만2000원>

▲나의 우주에는 마법 바퀴가 있어요=자연 곳곳에서 나타나는 순환 과정을 아름다운 화풍과 서정적인 이야기로 표현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새날이 밝는다. 구름은 비로 바뀌어 내리고, 애벌레는 나비로 자라 날아오른다. 커다란 마법 바퀴가 돌아가듯이 자연은 모습을 바꾸며 다시 시작하며 자연의 일부인 '나' 또한 마법 바퀴를 따라 순환한다는 사실을 전한다. <그레이트북스·1만5000원>

일기와 에세이로 풀어낸 두 시인의 일상과 창작의 즐거움

일기시대 문보영 지음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 강지혜 지음

최근 출판계에서는 다양한 에세이 시리즈가 나오고 있다. 민음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매일과 영원' 시리즈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의 기록'과 시간을 넘어 오래 기록되는 '문학 이야기'를 함께 엮은 기획이다. 작자들이 써내려간 일기이자, 그들의 문학론인 셈이다.

이번에 '매일과 영원' 시리즈의 출발을 알리는 두 권의 책이 함께 나왔다.

문보영 시인의 책 '일기시대'는 '일기주의자', '일기 딜리버리'로 불리는 저자가 풀어내는 일상 기록기와 소설 시 쓰기, 책읽기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문 시인은 직접 쓴 일기를 구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부치는 문학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만큼 적합한 이도 없다.

자정부터 새벽 다섯시까지 일기를 쓰는 저자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심리 상태나 기분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



의 방을 순간순간 그리는 것으로 일기를 시작한다. 그 속에 문학에만 몰두했던 문정 시절의 삽화가 담기고,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과 창작 활동의 힘겨움과 즐거움도 엿볼 수 있다.

책 곳곳에 실린, 직접 그린 삽화는 유쾌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 시인은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고 '책기둥', '베를 그라운드' 등의 시집과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등의 산문집을 펴냈다.

시집 '내가 훔친 기적'을 펴낸 강지혜 시인은 에세이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로 독자를 만난다.

책은 아무 인연도 없는 제주도로 떠나 식당을 직접 짓고 운영하며 자신의 시에 일어난 변화들을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적어내려갔다.

"따분함을 피하지는 것"을 결혼 생활의 원칙으로 삼은 결혼 9년차 강 시인 부부는 2016년 제주도 환경면 신장리도 떠난다. 하지만 '용맹한 용사처럼 나선 도취의 발걸음에 급이 가기 시작한 강' 한 순간. 영웅 서사 속 용사들에게 수많은 난관이 나타나듯 이들 부부 앞에도 슬픈 장애물이 나타나난다.

책에는 식당 '제비상회'를 운영하며 벌어진 이야기, '신장리 지킴이'에서 한 자씩 따 지는 큰 개 '신지'와의 에피소드, 제주에서 얻은 딸 아이와의 일상, 생계의 팍팍함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다. 물론 시 쓰는 일도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무정박 항해', '무력한 철거' 등 제주에 와서 쓴 시들을 소개하고, 그에 얽힌 간단한 코멘트도 함께 담았다.

'매일과 영원' 시리즈는 앞으로 소설가 정용준의 '소설 만세', 권민경 시인의 '나와 사귀고 당신을 알아가고', 유계영 시인의 '절반 정도 동물인 것, 절반 정도 사물인 것'을 비롯해 김남숙·소유정·김연덕 작가의 책이 출간될 예정이다. <민음사·1만4000원·1만4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